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이 내년 유·스퀘어 문화관을 찾는다. 왼쪽부터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양인모·임지영.

유·스퀘어 문화관 클래식 별들 온다

내년 10주년 기념 출연진 공개...피아니스트 선우예권·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등 무대

내년 개관 10주년을 맞는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에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이 온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최근 내년 금호아트홀 클래식 무대에 오를 출연진을 공개했다.

먼저 '클래식 기타의 요정'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1월8일 무대를 꾸민다. 빈 국립 음악대학 기타를 공부한 박규희는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히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2월19일에는 지난 2012년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입지를 다진 김다미가 바통을 이어 받는다. 2015년 최고 클래식 축제인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혼자만의 무대를 전석 매진시켰던 김다미는 최근 데뷔 음반 '드보르작'을 발매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예고했다.

오는 2월26일에는 떠오르는 신예 첼리스트 박유신과 피아니스트 박진형의 무대가 이어진다. 4월16일에는 국내 최정상급

실내악 연주단 '아벨 파르렛'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뒤를 이어 2014년 모차르트 국제콩쿠르에서 한국 협악 4중주단으로는 최초로 우승한 '노부스 파르렛'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이 5월14일 광주를 찾는다.

유·스퀘어 문화관 화제의 공연은 5월과 6월 만날 수 있다. 내년 5월29일 유·스퀘어 문화관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독주회가 잇따라 열린다.

지난해 6월 한국인 최초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선우예권은 올해 100회 넘는 리사이틀과 협연을 펼쳤고 내년에 국내외를 오가며 쉬 없이 연주를 펼칠 예정이다.

6월 무대에 서는 임지영은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뒤 뮌헨 캄머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브뤼셀 필하모닉, 룩셈부

르크 필하모닉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개성 있는 솔리스트로 연주를 펼치고 있다.

10월에는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시'를 연주하면서 '한국의 파가니니'라는 별명이 붙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온다. 다음 달인 11월에는 '트리오 제이드'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운의 독주회를 앞두고 있다. 박지운은 지난날 프랑스의 3대 오케스트라인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동양인 종신악장으로 임명됐다. 12월에는 최근 달리진 연주 스타일로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로 연말을 달군다.

이 밖에도 2019 금호아트홀(서울) 상주 연주자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스타급 연주자들이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연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수미술관 '도전과 실험작가' 서현호 작가전

내년 1월 11일까지... 오해 '크리틱 토크'

광주 미술 담론 활성화를 추구하는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한)은 아직 자신의 서사를 구성할 만큼 오래 작업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다양한 매체 실험을 하는 작가를 소개하는 '도전과 실험작가'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첫 주자로 박다해 작가 전시를 기획했던 미술관은 두번째 작가로 서현호를 초청했다. 7일 시작해 내년 1월 11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 서 작가는 'Dancing with Karma'을 주제로 회화, 테라코타, 드로잉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서 작가는 '몸, 춤, 그리고 삶' 세 가지 키워드를 주제 삼아 우리 삶을 하나의 업(Karma)으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작가는 '춤'을 통한



'백구와 춤'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동화, 초월, 연대라는 미래지향적인 시선을 담아냈다.

지난해 대인시장에서 518명의 이웃들을 드로잉하며 '공동체'라는 화두에 주목했던 서 작가는 단순화된 배경 안에 춤추는 인간들을 배치시킨 '춤추는 사람', 'Dancing for us' 등의 시리즈를 선보인다.

개막날인 7일 오후 5시 30분 열리는 '크리틱 토크'에는 서 작가와 양초롱·조사라·최영서씨가 함께 해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거쳐 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한 서 작가는 인간의 왜곡된 신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문의 010-5255-939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문화시민단체, 상임위 시민참여예산 삭감 반발

교문위 "기존 사업과 중복"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내년 시민참여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에 대해 광주 문화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내년 시민참여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에 대해 광주 문화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로 통해 "6건의 시민참여예산 중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와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 2건은 동일 단체 대표의 이름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청년문화의 집은 청년센터 등 기존의 청년공간과 차별성이 없으며 일자리 사업 역시 기존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문위 소속 이경호 의원(북구2·더

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민참여예산 특정인구 취약지역'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6건의 시민참여예산 중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와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 2건은 동일 단체 대표의 이름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청년문화의 집은 청년센터 등 기존의 청년공간과 차별성이 없으며 일자리 사업 역시 기존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광주 문화정책연구단은 "제안한 사업들은

42개 단체가 지난 3월부터 발굴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 100여 명의 공정한 투표를 통해 선정한 결과물"이라며 "특정인과 특정단체가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성격·내용이 다르다"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회복해 줄 것"을 주장했다.

시민참여예산은 오는 11-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관람객 만족" 70.4%

지난 행사보다 3.6%p 상승

2018광주비엔날레(9월7일~11월11일) 관람 만족도는 70.4%로 나타났다. (재)광주비엔날레재단이 행사 기간 전시관을 찾은 19세 이상 성인 관람객 11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지난 행사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관람만족도는 2010년 48%, 2012년 56%, 2014년 66.6%, 2016년 66.8%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국인 관람객의 관람만족도는 69.6%, 외국인인 75.9%로 나타나면서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국제적 위

상과 가치가 높음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국제미술 전시회로서 가치가 있는가를 측정한 국제미술전시회 가치 만족도는 74.6%로 평가됐으며 이는 종합관람만족도 보다 높아 관람객들이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 관람객은 73.7%, 외국인 관람객은 80.7%로 외국인 관람객들이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메인 전시장 2곳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서 광주비엔날레 본전시관 관람객 만족도 69.0% 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만족도가 74.0%로 더 높은 것과 관련, 노후화된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의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방증했다.

관람객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광주 45.2%, 서울 13.4%, 외국 13.0%, 경인권 7.2%, 전남과 경상권 각 7.0%, 전북 3.7% 순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2.7%를 차지해 주된 관객층을 형성했고 50대 이상 24.9%, 30대 22.6%, 40대 19.8% 순으로 많았다.

그밖에 관람 계기는 '문화예술 관심과 향유', '일상 여가활동'이 주된 요인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탈리아 재즈 매력 속으로

니콜라 세르지오 9일 광주아트홀

이탈리아 재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광주에서 열린다.

이탈리아 재즈 피아니스트 니콜라 세르지오가 오는 9일 오후 5시 동구 황금동 광주아트홀에서 한국 투어의 하나로 광주 공연을 갖는다.

세르지오는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재즈의 전통을 이어받은 연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한 그는 지난 2010년 네덜란드 '첼린지 레이블'과 첫 앨범 '심볼즈'를 발표했다. 같은 해 '심볼즈'는 이탈리아 재즈잡지 '재지트'의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됐고, 솔로 앨범 '미그란츠' 역시 독일 재즈 잡지 'Jazzthetik'이 선정한 '올해의 음반'에 뽑혔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세르지오는 유럽의 주요 재즈 클럽과 페스티벌에서 활발히 공연하고 있다.

이날 세르지오는 '팔레투사' 등 앨범 수록곡과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네운 도르미' 등을 연주한다. 전석 2만 5000원. 문의 02-941-1150.
/백희준 기자 bhj@

윈터, 플루트-홀릭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 10일 빛고을문화관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이 창단 13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16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윈터, 플루트-홀릭'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50여 명의 단원들이 무대를 꾸민다.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 전임지휘자인 변성호 관선대 교수가 지휘봉을 잡고 플루티스트 배혜경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이날 무대는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과 '심포니 40번', 하이든 '첼로협주곡 1번',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안단테와 론도' 등으로 꾸민다. 2부에서는 푸비푸바 어린이중창단과 100여 명의 그레이스 주니어 플루트 앙상블이 협연 무대를 선보인다.

지난 2005년 창단한 플루트 전문 연주단체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은 플루트 연주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10-6236-748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특허공법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